



길 위에서 이백스물한수 한시를 만나다

실험적인 또 한편의 '로드무비'
《한시기행》,
4년 준비한 '양명학파',
《여유당전서》 시부문 출간예정

단화의 끈을 잘끈 묶고서 길 떠날 채비를 마친 자에게 마지막 목적지란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고단한 여정의 완성은 마지막 목적지에 다다라서가 아니라, 낯선 세계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찾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한문학자 심경호 교수의 《한시기행》은 이러한 철학을 제시하며 길 떠남을 독려하는 흥미로운 저작이다. 고졸^{古拙}한 맛이 오히려 돋보이는 고지도 수십 장과 몇 백 권이 넘는 고문서를 훑어지고서 안내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심 교수의 자세는 결연하다. “오래고 고된 여정이라 하더라도 불평 말고 따라오시게나. 고지도로 따라 읽는 한시 한 수에 세속에서 묻힌 더께가 훌훌 벗겨질 터이니...” 조선팔도를 따라, 옛 도읍을 따라, 자연의 기상이 넘치는 곳을 따라, 저 먼 고대를 따라 멋들어진 한시와 함께 하는 여정이 어디 흔하거나 할 것인가. 그 끝에 목직한 성찰을 안겨주겠다 하니, 심 교수가 내민 손 흔쾌히 맞잡을 일이다.

“1995년 <국토산하를 노래한 한국 한시의 미학적 전통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한시기행》을 쓰는 데 근간이 되었지요. 새

롭게 한문학이 조명받기 시작하던 당시의 연구는 한문소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느 시대든 서정시는 당대를 읽는 주요한 키워드인데, 소설의 영역만이 아니라 시의 영역도 중요하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밝혀 보이고 싶었지요. 《한시기행》은 이런 작업의 연장으로, 일반인들에게도 한시의 중요성과 유익함을 전하고 싶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시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여러 책들을 통해 한시는 전례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갑작스런 대중들의 환호야 흔 감해할 일이지만, 우리 한시가 중국 한시와 비교, 평가절하되는 분위기에 대해 심 교수는 할 말이 많다. 심 교수는 우리 한시만의 특질로 '생활공간과의 밀착'과 '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든다. 생활공간과 밀착한 우리 한시에는 개인서정의 미학을 넘어,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공간을 비롯해 나아가 역사까지를 바꾸고자 하는 견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심 교수가 한시와 지리, 한시와 역사라는 테마에 천착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예법으로부터 자유롭기로 유명한 풍운아 허균이 우리 산하를 돌아보며 국방의 문제를 생각하는 등 허균의 한시에도 개혁의 의지는 두드러

집니다. 꽃을 소재 삼았다 하더라도 단순히 꽃을 찬미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전달하고픈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의 나라 문자인 한자를 퍼즐 맞추듯 맞춘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에 대한 비할 데 없이 깊은 사유가 담긴 것이 우리 한시입니다.”

《한시기행》의 압권은 역시 고지도를 따라 읽는 한시읽기에 있다. 영동의 산수를 알고 읽는 정철의 <죽서루>, 천리 유배지의 갈림길 나주를 알고 읽는 정철의 <울정의 이별> 등 그것이 씌어진 배경을 이해하고 읽는 한시는 멋과 맛이 사뭇 다르다. 심 교수는 한시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익숙지 않은 한시의 표현방식에도 이유가 있지만, 한시가 나온 배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더 큰 이유라고 말한다. 낡아 헤진 고지도로 조심스레 펴고 덮기를 몇 천 번,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시를 읽고 나니 풀린 오해도 여럿이요, 신선한 해석을 얻기도 여럿이었다. 지리학에 대한 연구야말로 우리 고전 미학의 가치를 밝히는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심 교수는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신증국동국여지승람>은 당대를 살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료”이며 “오늘 《한시기행》이 갖는 의미도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우리 산하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산업화의 이유로 우리는 길 떠나기를 속박받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지아를 찾는데 길을 떠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한편 서울만 해도 자연과 가장 친화적인 공간임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 도시가 지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연과의 친화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철학, 잃어버린 심성에 대한 치유책이 고지도와 한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리에 기대 한시를 읽는 주요한 이유랄 수 있지요.”

126명의 저자가 쓴 221편의 한시 인용을 위해 들춘 문헌만 50여 권, 각 지역에 대한 민담과 설화를 얻기 위해 들춘 자료만 몇 백 권. 방대한 분량의 성과를 얻기까지의 작업이 탄탄대로를 달렸을 리는 만무하다. 논문 집필 당시 수집한 자료와 여러 연구자들이 활발히 생산해 낸 결과물은 넉넉했지만, 고지도 자료는 너무나 부족했다. 그러한 사정으로서 한시에 명기된 지명이 오늘날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짚어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상고시대, 명·청대 등 시대별 역사지도를 갖추고 있는 중국의 사정이 진정 부럽기만 했다.

“김창흡의 <갈역잡영>만 하더라도 ‘갈역’이 대체 어느 지명인가를 알 수가 없었지요. <신증국동국여지승람>을 검토하고 나서야 ‘갈역’이 ‘기력역’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대로 명기한 김창흡의 표기를 이해 못한 것이지요. 황해도라 짐작했던 지역이 전혀 다른 지명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논문의 잘못된 주해를 그제야 바로잡을 수 있었지요. 지명에 대한 고증은 이번 작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문헌에 등장한 지명을 추적키 어려워 빼어난 시를 수록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쉽

습니다.”

새로운 한시읽기를 내보인 《한시기행》 이전, 심 교수는 <다산과 춘천> <한문산문의 내면풍경> <김시습 평전> 등 걸출한 저작을 내놓기도 했다. 한문학 전문필자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사실 심 교수에게 번역은 더없이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의 갑골문·금문학의 대가 시라카와 시즈카의 <한자, 백가지 이야기>, 명나라 말기 시인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영향을 끼친 원공도 문집 <원중량집> 역주를 통해 김 교수는 학계와 대중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배울 학이라는 한자는 본말을 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잘된 것을 본받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지요. 번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훌륭한 성과가 담긴 책을 번역하는 것은 또 다른 배움이기도 할 테지요.”

심 교수는 “새로운 책을 낼 때마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만 그것만큼 책이 잘 팔리지 않는다”며 아쉬워한다. 그러나 그러한 쓸쓸함도 잠시, “어디든 꽃혀만 있다면 지식이 되는 것이니, 후일이라도 사람들이 찾아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보람”이라고 심 교수는 멋지게 의미를 되돌린다.

“‘양명학파’를 주제로 4년 동안 원고작업을 이어왔는데 책으로 묶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여유당전서> 가운데 시문집 부분을 또 부지런히 역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즈음이면 둘 모두 성과를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전 원전을 돌파하는 것은 거의 식음전체의 작업이에요. 시간과 공력이 엄청나게 소요되지요. 고전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부족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욕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문학이 결코 배고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한시기행을 저술하기 위해 참고한 고지도

